



# 국어 5-2

## 5학년 2학기 되돌아보기

전주송북초등학교

6학년 5반 번

이름: \_\_\_\_\_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 8. 우리말 지키미

1 누리 소통망 대화가 직접 대화하는 것과 다른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 ① 글자로 대화를 한다.
- ② 얼굴을 보고 대화한다.
- ③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 ④ 대화하는 상대의 표정을 알 수 있다.
- ⑤ 대화하는 상대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2 그림 ②에서 남자아이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 ( )

- ① 학교에 가지 않아 즐겁다.
- ②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다.
- ③ 숙제가 너무 많아 짜증이 났다.
- ④ 친구랑 놀지 못해서 심통이 났다.
- ⑤ 놀이 공원에 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

3 남자 아이가 친구들에게 답장을 보낼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 ① 모두 아팠으면 좋겠어.
- ② 심심해. 내일 학교로 놀러 갈게.
- ③ 빨리 낫는 것이 마음대로 되냐?
- ④ 연락 안 한 사람 다 기억해 둘 거야.
- ⑤ 선생님, 고맙습니다. 빨리 나올게요. 모두 정말 고마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상설 전시실 바로 위에는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이 있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 놀이터’,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한글 배움터’는 모두 체험과 놀이를 하면서 한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별 전시실’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세종 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라는 기획 아래 세종 대왕의 업적과 일대기, 세종 시대의 한글문화, 세종 정신 따위를 주제로 한 전통적인 유물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책과 화면으로만 봤던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 번씩 운영하는 해설이 있는 관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관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관람으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무척 뿌듯했다.

4 이 글은 어디를 다녀와서 쓴 글인지 쓰시오.  
( )

5 이 글에서 글쓴이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시오. .... ( )

- ①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 ② 날마다 세 번씩 운영하는 해설이 있는 관람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③ 전통적인 유물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 ④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책과 화면으로만 봤던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 ⑤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무척 뿌듯했다.

6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치면 좋은 점이 아닌 것에 ×표 하시오.

- (1)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 내용을 생생하게 고칠 수 있어서 좋다. ( )
- (2)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고치는 경우도 있다. ( )
- (3)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좋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5)

(가) 사냥꾼: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가?

빨간 풍선: 민서영이 흑설 공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민서영이 자기 입장을 밝혀 주어 속 시원하다.

은하수: 내가 보기에 흑설 공주가 너무 심하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런 거짓 글을 실었을까?

거지 왕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닐까?

하이다: 흑설 공주의 글을 보면 민서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어쩌면 흑설 공주의 글이 사실이 아닐까?

기쁜 나무: 아무리 흑설 공주의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남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건 나쁜 것이다.

(나) 다음 날 민주는 또다시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흑설 공주가 서영이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흑설 공주가 올린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민서영, 내가 쓴 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반박할 증거를 내 놓아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가 쓴 모든 글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4 기쁜 나무가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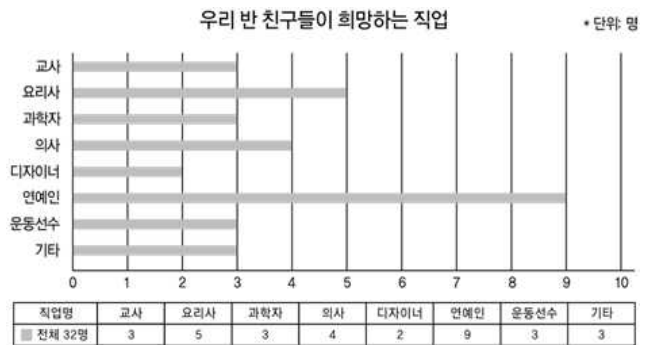
- 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 ②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
- ③ 인터넷을 너무 오래 하는 것
- ④ 인터넷에 남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
- 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이 쓴 글을 사용하는 것

15 흑설 공주가 민서영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자신과 친구가 되자는 것
- ② 자신의 숙제를 대신해 달라는 것
- ③ 서영이가 올린 글을 내려달라는 것
- ④ 흑설 공주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것
- ⑤ 자기가 쓴 글을 반박할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8)

최근 한 매체에서 ‘연예인’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번진 아이돌 열풍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꿈이 ‘요리사’인 초등학생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요리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프로 게이머’를 희망 직업으로 뽑은 학생이 대다수였을 때도 있었다. 직업은 생활 수단이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그런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유행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16 이 글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무엇인지 쓰시오.

( )

17 다음은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를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조사 대상	우리 반 친구들
조사 범위	(1) _____ 명
자료의 출처	(2) _____

18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믿을 만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재미있는 자료인지 살펴봐야 한다.
- ④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
- ⑤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인지 살펴봐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오정이 ㉡뚝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에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최소 난청’이지만 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전음성 난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외에도 일반적인 소리까지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귀를 후비거나 하품하거나 귀에 바람을 넣어 봐도 순간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뿐 금세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 밖에도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19 ㉠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 ( )

- 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 ②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
- ③ 만화 주인공을 닮은 사람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 ⑤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0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을 한 가지만 쓰시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23)

(가) 엄마는 아침에 솔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엄마와 내가 차고에 들어서자, 솔로스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보였다. 두 사람 다 상심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로스 할아버지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아, 나는 모든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솔로스 할아버지의 침대에 놓인 베개도 만져 보고, 솔로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의자의 등받이도 쓰다듬었다. 그러다 우리가 함께 쿠키를 만들 때 솔로스 할아버지가 입었던 요리복을 발견했다. 나는 요리복을 덥석 움켜잡았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나) 나는 드디어 기말과제 종이를 펼쳤다. 맨 위쪽 빈 공간에 빨간색 글씨가 가득했다.

‘퍼트리샤, 맞춤법은 아직 손보아야 할 곳이 많지만, 낱말에 날개가 달려 있구나, 채점 기준만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네게 글쓰기반 최초로 에이(A)점수를 주마.’

(다) 훗날, 켈러 선생님은 내가 솔로스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의어 사전을 가지고 기말 과제를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말했다. 나는 솔로스 할아버지가 유의어 사전 가장자리에 직접 적어 놓은 글들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솔로스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낱말을 썼지만, 그 낱말이 빗어낼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마지막 과제에 담았다. 지금도 솔로스 할아버지와 켈러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만큼 갖가지 낱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내가 늘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두 분이니까.

21 글 (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 )

- ① 켈러 선생님께 혼났다.
- ② 솔로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 ③ 켈러 선생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다.
- ④ 솔로스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떠나셨다.
- ⑤ 솔로스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학교에 방문했다.

22 글 (나)에서 퍼트리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 ( )

- ① 기쁘다.
- ② 귀찮다.
- ③ 슬프다.
- ④ 안타깝다.
- ⑤ 우울하다.

23 퍼트리샤에게 켈리 선생님과 슬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24 다음 대화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낱말을 찾아 쓰고, 찾은 표현이 문제가 되는 까닭을 쓰시오.

제하: 수업 시간에 열공했더니 배가 고프다.  
혜영: 나도 배고픈데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사 먹을 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낱말	(1)
찾은 표현이 문제가 되는 까닭	(2)

25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표 하시오.

- (1) 발표할 때 원고만 보며 말한다. ( )
- (2) 자료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크게 제시한다. ( )
- (3)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는 보여 주지 않는다. ( )